

월성 해자출토 곰뼈의 이용과 폐기에 대한 시론

On the usage and discarding of bear
(*Ursus* sp) bones excavated from
Wolseong moat site

김 현 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특별연구원

I. 머리말

II. 월성 해자 속 동물유체의 출토양상

1. 월성 해자 속 동물유체의 양상
2. 곰뼈의 출토양상

III. 유적 및 기록 속 곰의 이용사례

1. 유적 출토 곰의 사례
2. 문헌을 통해 본 곰의 이용 사례

IV. 월성유적 속 곰의 이용형태

1. 뼈의 흔적을 통해 본 곰의 반입과 폐기
2. 월성 해자 출토 곰뼈 이용의 양상

V. 맺음말

국문 요약

월성 해자유적에서는 다양한 동물유체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은 가죽에 해당하는 동물이고 야생동물의 출토 수량은 적은 편이다. 가죽이 주를 이루는 동물유체의 구성 중에서 곰의 출토는 주목되는 점이다. 삼국시대 흔히 출토되는 야생동물인 사슴과 달리 곰의 출토는 특수한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곰의 출토 사례와 문헌 속의 곰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 곰의 가죽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실제로 이용한 가죽 부위와 출토되는 뼈 부위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서 곰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뼈에 남은 해체 흔적을 통해 반입한 곰은 월성의 근처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가죽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월성 주변의 유적에서는 미상의 소결된 수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계림과 월성 해자에서도 제철과 관련된 유구 및 도가니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월성의 주변에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왕실 관련 공방시설이 문헌 기록 속의 관청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를 추후 고찰해 본다면 월성을 중심으로 한 관청의 배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동물유체, 곰, 가죽, 해체, 공방

I . 머리말

한국에서 동물유체가 출토되는 유적은 많지 않다. 대부분이 패총과 저습지에서 출토된다. 이와 같은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체는 당시 사람들이 먹고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슴은 다양한 골각기를 만드는 재료를 위해서 잡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슴의 중수골과 중족골을 이용해 만든 골각기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두개골 혹은 어린 개체가 많은 경우는 의례로 이해되고 있다(이준정 2011).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동물은 대부분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에 흔히 나오는 동물로 주로 사슴과 멧돼지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흔히 보이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출토되는 수량과 부위가 한정되는 점이 해석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월성유적에서는 삼국시대의 해자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해자 속에서는 다양한 동물유체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유체가 해자 속에 어떻게 폐기된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힘든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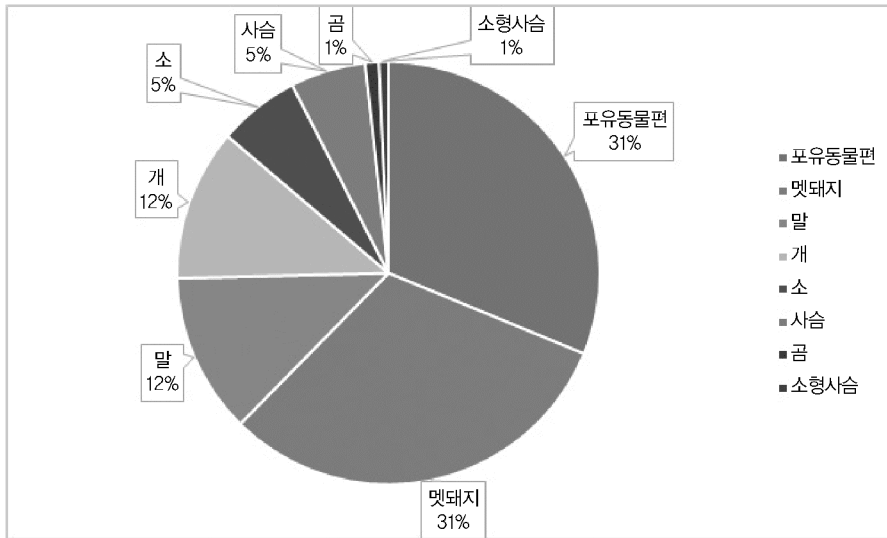
동물유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 사례가 적은 곰뼈를 대상으로 유적에 반입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 월성 해자 속 동물유체의 출토양상

1. 월성 해자 속 동물유체의 양상

월성유적은 1980년대부터 발굴이 이루어졌고, 동물유체는 4호 해자와 함께 보고된 바가 있다(유병일 2008). 이후 2014년부터 해자 최하층까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월성유적 속 동물유체의 양상이 알려지게 되었다(김헌석 · 이수연 2018).

월성 해자 속에서는 다수의 동물유체가 확인되었으나 현재 정리 중에 있다. 약 1,200점 가량의 동정을 통해서 멧돼지류, 소, 말, 개, 강치 등의 동물을 확인했다. 동



[그림 1] 동정가능표본수(NISP)로 본 월성 해자 출토 동물의 양상(NISP=1249)

물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멧돼지류이다. 멧돼지류에는 아직까지 집돼지와 멧돼지를 분류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집돼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명확히 집돼지로 분류하기 힘든 상태이다.

멧돼지류 이 외에 많은 양을 보이는 것은 소, 말, 개와 같은 가축인 종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멧돼지류 속에 가축인 집돼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소, 말, 개 등의 가축이 많이 확인되는 점은 주목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축종이 많고 야생동물의 수가 적은 점은 월성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가축종이 많이 확인되는 점은 월성 해자 속의 동물유체가 식용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축종이 많고 야생동물이 적은 해자의 동물유체 양상에서 곰科的의 뼈가 소수 확인되는 점은 주목된다. 월성유적에서 야생동물 이용은 제한적이었음에도 삼국시대에 흔히 발견되지 않는 곰이 해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다른 가축종과 함께 월성에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곰뼈의 출토양상

앞서 간략히 살펴본 동물유체의 양상을 통해 보면 야생동물의 출토량은 적다. 특히 삼국시대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사슴류의 비중이 적은 점과 흔히 보이지 않는 곰

科 동물이 확인되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다.

곰뼈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곰과 동물유체는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 시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곰과 동물은 불곰과 반달가슴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확한 종의 동정을 위해서는 표본 및 다른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는 곰의 크기에 대한 수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현생의 반달가슴곰(이하 현생표본)과 비교했다. 그 결과 출토 품의 크기는 현생표본보다는 큰 개체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종골에서 골단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크기임 점과 요골의 원위부에서도 골간부 및 원위부의 크기가 큰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가 암수의 성별에 의한 차이인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¹⁾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점에서 곰과로 동정했다.

현재 월성유적에서 확인되는 곰뼈의 부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월성출토 곰뼈 일람

연번	부위	좌우	잔존부위	개수	출토위치	비고
1	하악골	좌측	(M123)	1	1호 해자	
2	상완골	우측	골간부	1	1호 해자	관절부 결손
3	요골	우측	완형	1	1호 해자	소형?
4	요골	좌측	근위부	1	4호 해자	
5	요골	좌측	근위부	1	1호 해자	
6	요골	좌측	원위부	1	1호 해자	
7	요골	좌측	원위부	1	1호 해자	
8	대퇴골	좌측	거의완형	1	1호 해자	양끝단 결손
9	종골	우측	완형	1	1호 해자	
10	종골	우측	완형	1	1호 해자	골단미융합, 어린개체
11	종골	좌측	거의완형	1	1호 해자	골단 결손
12	중수골		완형	2	1호 해자	제3중수골?
13	중절골		완형	1	1호 해자	
합 계				14	MNI=3(요골 및 종골)	

1) 필자가 훗카이도 불곰을 관찰한 소견을 통해서 보면 반달가슴곰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서식한 반달가슴곰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암수에 의한 크기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크기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곰과의 동물로 동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림 2] 월성유적(1호 해자) 출토 곰뼈

[표 2] 천연기념물센터 보관 표본과의 비교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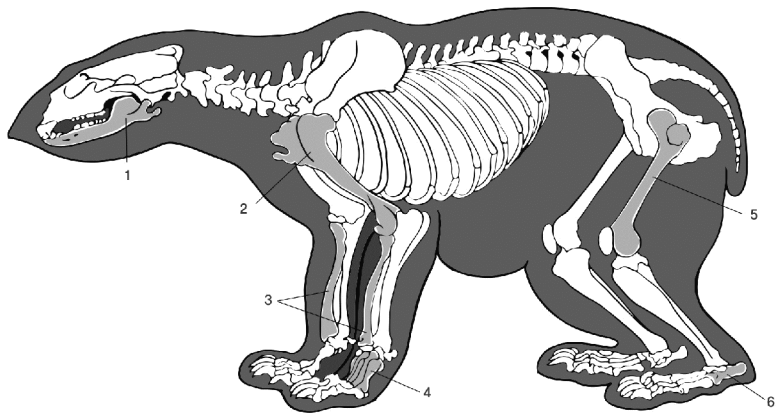
계측부위 ²⁾	표본	월성3	월성5	월성6(그림3-3)	월성7
전장(잔존장)	210	223	(138.9)	(152.8)	(133.9)
근위넓이	31.95	30.45	31.00	-	-
골간넓이	20.02	18.99	28.70	28.22	26.14
원위넓이	45.75	42.97	-	48.59	50.36

출토된 곰뼈의 하악골 1점을 비롯해서 종골, 요골, 앞다리 부위와 발목 관절에 관련된 부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골(踵骨)을 통해서 보면 어린 개체의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골의 원위부 크기를 보면 크기가 다양한 개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위부의 관절면이 모두 융합된 상태인 점에서 성장이 끝난 상태의 것으로 근위부의 골격에서 크기 차이를 보인다. 해자의 동물유체 대부분은 해자의 최하층(5-3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 및 씨앗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참고한다면 해자 최하층의 연대는 5세기에서 6세기로 생각된다(안소현 2019; 박정재 · 최문정 2017). 곰뼈도 해자 최하층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5세기에서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2) 남은 부위를 중심으로 계측했다. 골간의 경우 잔존된 상태의 가장 끝단을 중심으로 계측했다.



[그림 3] 천연기념물센터 소장 표본과의 비교(1: 하악골 2: 중골 3: 요골 원위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1. 하악골, 2. 상안골, 3. 요골, 4. 중수골, 5. 대퇴골, 6. 종골

[그림 4] 유적 출토 곰의 골격부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한성백제박물관 2019에서 일부 변형)

지금까지 확인된 월성 해자의 곰의 출토양상을 보면 종골 및 요골에서 3개체 이상의 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유적 및 기록 속 곰의 이용사례

1. 유적 출토 곰의 사례

동물유체가 보고된 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삼국 및 고려시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곰뼈가 보고된 유적은 다수가 신석기시대의 북한지역의 동굴 및 내륙에 해당하는 유적이다(이충민 2011). 그래서 신석기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출토되는 곰뼈의 사례는 많지 않다.

1) 동래패총(부산광역시립 북천박물관 1999;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동래패총은 삼국시대 북천동 고분군의 생활집단이 남긴 것으로 생각되는 패총이다. 동래패총에서 확인되는 동물유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은 사슴류가 차지하고 있다. 곰뼈가 확인된 것은 동래패총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곰뼈의 중수골 1점이 확인되었다. 필자가 소장 중인 흑곰의 중수골과 비교하면 크기가 유사한 점에서 월성의 개체와 유사한 크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강문동유적(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2012)

강문동유적은 초기철기에서 삼국시대의 저습지 유적이다. 이 속에서는 멧돼지를 비롯해 다수의 동물유체가 출토되었다(고은별 2012). 그 속에서 곰과의 상완골과 요골이 출토되었다. 요골은 거의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제시된 사진의 크기로 보아 월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크기로 생각된다. 상완골은 원위부에 가까운 부분이 출토되었다. 뼈에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는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 원위부 관절이 파괴된 형태이다.

3) 경산 임당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임당고분군에서도 곰뼈가 1점 확인되었다. 확인된 부위는 상악의 견치를 이용해 만든 장신구로 무덤 속에서 확인된다. 견치의 뿌리 부분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보이

고 있는 점에서 장신구로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접한 저습지유적에서는 소와 말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유체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동물의 뇌수를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해체 방법이 확인된 점은 주목된다.

4) 사천 늑도유적(부산대학교박물관 2004)

사천 늑도유적은 주거지와 패총이 섬 전체를 덮고 있는 유적군이다. 유적의 옹관묘 및 패총에서 다수의 동물유체가 확인되고 있다. 그중 5호 옹관묘에서 불곰의 종골 1점, 패총의 5층에서 종골이 1점이 확인된다. 이 자료는 불곰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크기도 월성에서 출토되는 것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5) 서울 풍납토성(한신대학교 박물관 2005)

서울 풍납토성은 백제의 왕성의 하나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중 경당지구는 다양한 창고 시설 및 우물 의례와 같은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2개의 수혈에서 곰뼈가 한 점씩(9호: 중족골, 101호: 중수골) 확인된다.

주변 유구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의례 후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된 사례가 적지만 삼국시대 유적 속 곰뼈는 1~2점의 소량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되는 곰뼈의 양상을 보면 동래패총과 늑도유적, 풍납토성은 중수골, 중족골, 종골과 같은 부속적인 뼈의 부위이다. 그러나 강문동과 임당유적은 요골, 상완골 및 견치와 같은 고기 혹은 주요 장신구의 부위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유적이 가지는 성격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곰뼈가 확인되는 유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늑도유적은 옹관묘, 임당유적은 무덤 내에 부장된 장신구로서 확인된다. 그리고 강문동유적의 저습지부분은 주변의 목기의 미가공품, 어린 개체의 멧돼지 등을 통해서 공방지 관련 유물의 폐기와 수변 의례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래패총은 최근의 조사에서 미상의 수혈유구와 함께 다량의 골각기가 보이는 점에서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주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이러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곰이 확인된 곳들이 공방지 혹은 의례와 관련된 공간 속에 혼재하고 있다. 패총과 저습지의 다른 뼈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곰뼈가 퇴적되었다고 한다면 곰도 의례 혹은 공방에서 이용된 후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곰의 이용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임당유적의 사례이다. 임당을 제외한 유적에서는 사용 후 폐기된 형태를 보이지만, 임당유적의 경우는 곰을 수렵한 목적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동물의 견치를 장신구로 사용하는 사례는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에 흔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임당고분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 곰을 수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문헌을 통해 본 곰의 이용 사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확인되며 당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매개자로 문헌 속에 표현하고 있다(김정숙 1990). 이러한 상징적 은유를 위한 표현 이외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옥사조(屋舍條)의 수레 및 마구의 치장을 골품에 따라 제한하는 기록 등에서 소와 말, 사슴 등 다양한 가축의 이용 사례(김정숙 2003) 혹은 음식물의 이용에 관한 기록들이 보인다(김수민 2008; 권주현 2012).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대부분은 소와 말, 포복 혹은 야생동물에 대한 기록으로 곰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³⁾

弟監花. 熊頰皮, 長八寸伍分.

제감화(弟監花), 곰의 뺨가죽(熊頰皮)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8치 5푼이다.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軍師監花. 熊脬皮, 長八寸伍分.

군사감화(軍師監花), 곰의 가슴가죽(熊脬皮)으로 길이는 8치 5푼이다.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大匠尺幢主花. 熊臂皮. 長七寸 一云中虎額皮, 長八寸伍分.

대장척당주화(大匠尺幢主花), 곰의 팔가죽(熊臂皮)으로 길이는 7치이다. (한편으로 중간 크기 호랑이의 이마 가죽으로 길이는 8치 5푼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삼국사기』 잡지9편의 무관편에는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의 장식

3) 『삼국사기』 기록의 검색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을 여러 동물의 특정 부위 가죽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제감화, 군사감화, 대장척당주화의 경우에는 곰의 특정부위 가죽의 이용과 함께 수치를 기록해 명확한 이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구와 관련된 사항 혹은 음식물 등에 남은 기록을 통해서 신라시대의 동물의 이용은 주로 가죽 혹은 식생활에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죽의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문헌에는 신라 왕실에서 가죽을 만들고 제품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 보인다.

날가죽에서 무두질을 통해서 원피를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신라 사회에서 가죽을 이용한 물품의 생산이 세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분화된 가죽 관청은 통일신라시대에 정비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박남수 1993).

이러한 가죽관청과 곰가죽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을 통해서 보면 곰의 특정한 부위 가죽을 왕궁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군사조직의 상징물은 왕궁 혹은 중앙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3] 『삼국사기』 속 신라 가죽관련 관청

관청명 ⁴⁾	제작품
타전(打典)	가죽 무두질
화전(靴典)	가죽 장화 제작
타전(鞞典)	가죽 장화 제작
피타전(皮打典)	북 종류의 생산
추전(鞞典)	소와 말에 이용되는 가죽끈을 제작
피전(皮典)	날가죽의 무두질

IV. 월성유적 속 곰의 이용형태

삼국시대 유적에서 곰뼈가 출토되는 양상과 문헌 속의 사례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곰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문헌과 발굴된 상황을 종합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및 박남수 1993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해보면 삼국시대에 곰의 이용은 가죽 혹은 장신구 제작을 위한 수렵이 보인다. 특히 가죽은 군사조직을 대변하는 상징물에 이용하고 있고 곰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해 수렵하고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용이 월성유적 주변에서 가능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왔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뼈의 흔적을 통해 본 곰의 반입과 폐기

월성유적에서 출토되는 곰뼈의 출토상황을 보면 종골에서 최소 3개체가 유적으로 반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출토 부위도 앞다리와 뒷다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많으며 특히 종골과 요골이 중점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동물을 수렵하는 목적이 육류의 사용이라면 고기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상완골, 관골, 대퇴골과 같은 부위가 다수 남을 것이다. 곰뼈의 출토수량이 많지 않은 점에서 육류의 이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종골, 요골, 지골과 같은 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고기가 적은 부위를 제거하고 도구로 사용하기 힘든 부위를 먼저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곰뼈에 남은 특이한 흔적으로는 몇 개의 뼈에 남은 개로 보이는 식육목의 이빨 흔적과 하악골의 하악지에 보이는 칼날의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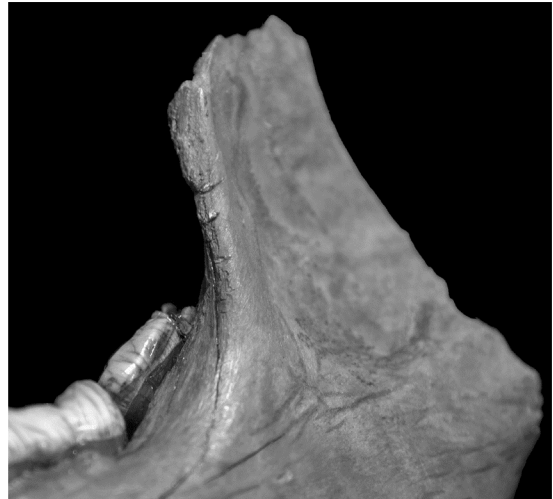
현재 해자에서는 곰의 전신에 가까운 부위가 출토되고 있다. 다른 유적에서 곰의 뼈가 1~2점에 불과한 것에 반해 해자에서 곰뼈가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은 월성 주변에서 곰의 이용이 집중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하악골에 칼날에 그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곰의 두개골과 하악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흔적이다. 동물의 두개골과 하악골은 뼈가 아닌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양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악지(下顎支:악골에서 두개골의 협골(頰骨)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내측에서 외측으로 해체흔이 남게 된다. 이러한 흔적이 곰뼈의 하악골에서 보이고 있다(그림



[그림 5] 요골의 이빨흔적 (근위부 주위에 전면에 걸쳐서 남아있다)

6). 이점은 월성 주변에서 하악골을 해체한 후 하악골만을 반입하거나 혹은 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해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체한 하악골이 이용을 위해서 가져온 것으로 이 부위가 가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곰뼈에 남은 다른 흔적으로 개가 이빨로 물은 것과 같은 흔적이 종골과 요골에 남아있다. 종골은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아래를 잘라내는 경우 해체되는 부위로 자주 폐기되는 부위이다. 특히 4호 해자에서 출토된 곰의 요골 근위부에는 씹은 것과 같은 흔적이 확연하게 남아있다(그림 5). 이러한 흔적은 곰을 해체한 이후에 뼈는 개의 먹이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하악골에 남은 해체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해체흔이 3회 이상 남아있다)

곰에 남은 해체흔과 다른 동물의 이빨 흔적은 곰이 수렵된 이후에 월성의 근처에서 해체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곰의 반입이 의례를 위한 제물로서 반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만약 곰이 의례를 위해서 유적 반입되었다면 개에 의해서 남은 흔적들이 뼈에 남기는 힘들 것이다. 고분의 제사에서 사용한 음식들을 참가자들이 함께 섭취하는 공식의 개념(이준정 2017)이 적용되어, 멧돼지 및 소, 말 등의 고기와 함께 곰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뼈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먹는 과정을 했을까는 의문으로 남는다.⁵⁾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본다면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월성의 근처에서 해체와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헌 기록과 같이 가축을 목적으로 곰을 반입한다면 뼈가 아닌 가죽만을 반입해 물건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성 해자 속에서 곰뼈가 보이는 점에서 가죽의 분리 혹은 고기의 해체가 유적의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본다면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월성의 근처에서 해체와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헌 기록과 같이 가축을 목적으로 곰을 반입한다면 뼈가 아닌 가죽만을 반입해 물건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성 해자 속에서 곰뼈가 보이는 점에서 가죽의 분리 혹은 고기의 해체가 유적의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삼국시대 고기의 섭취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사례가 없다. 단지 삶거나 구워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뼈가 심하게 탄 소골(燒骨)이 유적에서 많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뼈를 불에 직접적으로 구운 것은 아니며 발골된 상태의 고기를 구워서 섭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월성 해자 출토 곶빼 이용의 양상

유적에서 곶빼가 출토된 상황과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곶빼가 이용된 상황은 크게 의례적 이용과 실용품의 제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분(임당고분군) 및 무덤(늑도유적) 속 혹은 어린 개체와 함께 출토되는 강문동 저습지와 같은 경우 의례적 맥락이다. 월성의 해자에서도 복골이 출토되는 점에서 의례적 상황에서 매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뼈의 상태를 보면 해체된 이 후에 추가적인 이용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물은 의례에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실용품의 제작은 장신구 제작 혹은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가죽을 이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현재 출토된 부위들은 문헌에서 곶의 가죽을 사용하는 부위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의 상징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배자의 통치와 관련된 행위로 월성 유적이 신라의 궁궐이라는 점은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고고학 유적에서 가죽 생산과 관련된 유물로 생각되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⁶⁾. 가죽은 유기질 유물로서 철기유물에 부착되는 철산화물에 의해서 그 형태가 남아서 가죽 및 다양한 깃털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례 이외는 유물로 확인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임지영 외 2010).

가죽으로 이용한다면 해체 후 가죽의 제작까지 전문적인 공인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곶빼에 남은 흔적을 생각하면 해자의 주변에서 동물을 이용하고 그 부산물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이러한 해체와 관련된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위치했는지는 추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적어도 『삼국사기』 기록과 같이 곶의 가죽을 군대 수장을 나타내는 상징품에 이용했다면 가죽의 제작과 활용에 왕궁이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월성 주변에 조사된 발굴조사를 살펴보면 왕궁이 존재하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주변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6) 가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유물은 거의 없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유병일 2003). 실제로 가죽 손질 중에 이용하는 도구는 구석기시대의 석인(石刃)이 언급된 바 있고(장용준 2010), 이 후에도 동일한 모양의 도구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건물지가 보이고 있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헌과 고고학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 통일신라기가 되면서 월성 주변으로 왕궁이 확장되는 것이 보인다(윤선태 2019; 박정재·최문정 2017). 통일신라기에 월성의 외곽으로 왕궁이 확장되는 것은 삼국시대에는 월성의 주변에 왕궁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월성 주변에서 제철 및 공방지로 추정되는 유구 및 미상의 소토유구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유구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이용하는 물건들을 제작하는 생산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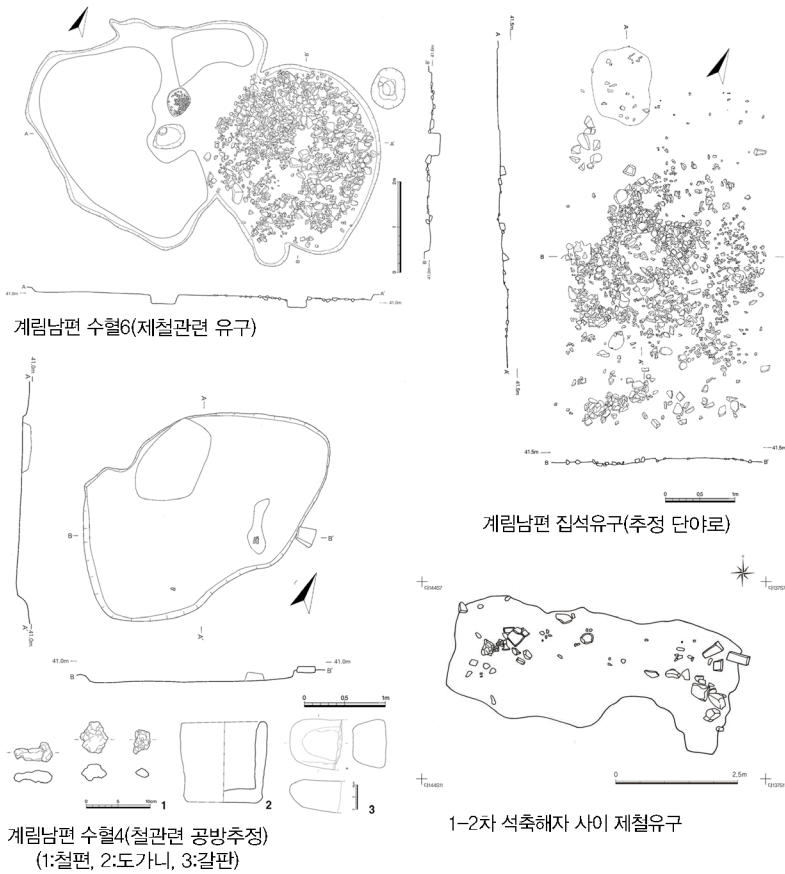
먼저 제철관련 유구로 생각되는 것은 4호 해자 주변에서 송풍관 시설이 있는 제철유구가 확인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그리고 계림 남측에서도 제철과 관련된 삼국시대 공방지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되는 점에서 삼국시대 월성 해자 주변에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또한 월성 해자에서 목조의 판자벽이 확인되는 점과 다양한 목기들도 출토되고 있어 목재의 가공도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남태광 2018).

이러한 유구 및 유물을 통해서 보면 철의 가공 및 목공을 위한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삼국시대의 공방관련 유적은 단순히 하나의 공방이 아닌 집약적인 공방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 고촌유적은 수영강변에 위치한 유적으로 목재의 공방과 칠기, 가죽제작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다(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0). 고촌유적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각형 혹은 횡방향으로 절단한 다수의 동물 두개골이 출토되고 있는 점이다. 수렵된 동물의 해체를 생각하면 두개골은 해체 이후에 두개골 그 자체를 해체한 후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녹각의 채취를 위한 해체 이외에도 횡방향으로 절단하는 것은 뇌수의 채취혼적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절단은 뇌수 채취의 혼적으로 고려된 바 있고(유병일 2003), 주변 유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죽과 관련된 공방의 혼적으로 추정된다.

가죽은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말릴 경우 딱딱하게 변한다. 그래서 무두질을 통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무두질에는 가죽을 씹는 방법, 동물의 분노 및 뇌수 등의 이용, 식물기름 등을 이용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유병일 2003; 出口公長 2006; 안보연·홍나영 2008). 이러한 방법 중에서



[그림 7] 월성 주변 공방관련 유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2011)

유적 속에 유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뇌수의 이용 흔적이다. 가죽 자체에 뇌수의 흔적이 남을 수는 없지만 뇌수를 채취하기 위한 동물 두개골의 흔적은 남을 수 있다(그림 9). 실제로 뇌수의 채취로 보이는 동물 두개골이 많이 보이는 점은 가죽을 무두질하는 공방의 가능성이 고촌유적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임당의 저습지 유적은 철기 및 목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현재 가죽의 실제 이용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갑주에 이용한 가죽의 흔적이다. 갑주를 제작하는 철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임당 저습지 유적에서는 뇌수를 채취하기 위한 두개골 해체흔이 보이고 있다. 다양한 공방들이 집약된 형태로 갑주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갑주를 엮기 위한 가죽 공방도 함께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방의 모습은 삼국시대의 공방집단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공방유적에 목기와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집단과 함께 부속되는 다양한 공인 집단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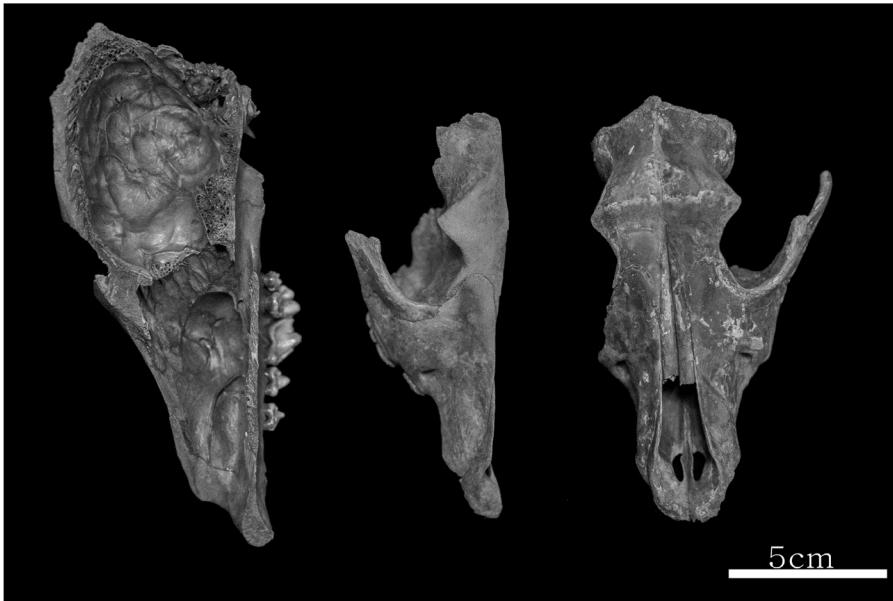
그리고 삼국시대의 월성 주변 공방에서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월성 주변에서는 제철 및 단야의 유구는 확인되었고 목재 판자벽을 통해서 목재 가공 공방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공업 생산 집단이 한 곳에 집약되는 다른 유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월성 주변에 가죽을 생산하고 피혁제품을 만드는 집단도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월성에 인접한 곳에서 수공업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부산물들이 해자 속에 폐기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공방유적에서도 공방과 관련된 유물들이 근거리 폐기된 것이 보이는 점에서 뼈에 남은 흔적을 통해 추정한 월성 주변의 해체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해자에 곰뻐가 폐기되었다면 곰뻐의 출토양상과 문헌에서 이용을 지정하고 있는 부위가 일치하는 것은 가죽을 위해서 곰을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월성에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죽의 채취 후에 뼈는 해자 속에 폐기하는 과정이 추정된다.

실제로 신라의 관청 중에는 가죽의 가공과 관련된 곳이 『삼국사기』에 언급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청의 기능을 살펴보면 피전 및 타전과 같이 무두질을 담당하는 관청부터 탐전, 화전, 추전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의 생산까지 세분해 왕실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서의 세분화는 왕실에서 이용하는 피혁제품 생산에 관련된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청의 기능은 동물이 수렵된 후에 가져와서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의 단계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제감화, 군사감화, 대장척당주화와 같은 가죽은 이러한 관청에서 생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곰의 가죽 이외에도 다양한 가죽을 이용해서 군사깃발을 만드는 사례가 『삼국사기』에 기록되고 있다.⁷⁾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왕실에서 이용한 소수의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두질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식물성 기름과 뇌수와 같은 단백질 성분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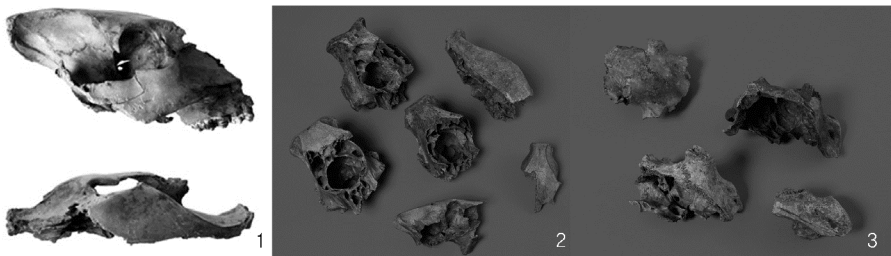
7) 다른 깃발들은 호랑이의 이마가죽과 뺨가죽, 독수리의 꼬리깃털 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이 추후의 정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해자 속의 개 두개골 절단 사례

앞에서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부산물로 생각되는 것이 갈라진 동물의 두개골이다. 실제로 가축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축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이 가장 중요하고 무두질을 하는 관청을 따로 두기도 했다.

이 중에서 뇌수의 채취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뼈가 월성 해자에서 보이고 있다. 출토되는 뼈 중에는 두개골이 종방향으로 갈라진 개의 뼈 사례가 있다. 이러한 두개골의 해체방식은 고촌유적의 동물 두개골 해체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고촌유적에서는 두개골을 종으로 자르거나 구멍을 뚫은 사례가 보이고 있다. 또한 임당유적에서도 멧돼지의 두개골에 대해서 종으로 자른 사례가 보이는 점에서 뇌수를 이용하기 위해 절단한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유병일 2008). 이와 같은 두개골 절단



[그림 9] 뇌수 획득을 위한 두개골 절단 사례(1: 임당 저습지(유병일 2008) 2·3: 고촌유적(정관박물관 2017))

흔적은 뇌수의 이용을 위해 정교하게 두개골을 해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죽을 무두질하고 왕실에 바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일본에 남아있고 이 중에는 뇌수를 이용해서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이 일본의 9세기 기록으로 남아있다(出口公長 2006; 김현석 2017). 그리고 개의 뇌수를 이용한 무두질의 사례를 통해서 뇌수를 이용한 무두질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안보연·홍나영 2008). 이러한 기록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무두질 과정에 뇌수를 사용했고 이것이 두개골의 절단흔적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시내와 궁궐에서 말의 후두부가 깨어진 채로 나오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의 후두부가 깨어진 채 출토된 말 두개골의 흔적과 뇌수를 모아서 바치도록 한 율령을 통해 가죽 기술과 관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松井 章 1986; 大澤正吾·山崎 健 2016). 월성 해자와 시기는 다르지만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깨어진 말의 두개골이 안압지(문화재관리국 1978)와 재매정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양 유적에서 나온 말의 두개골은 뇌가 있는 후두부만을 파괴하고 폐기한 것으로 각각 3개체와 4개체가 확인된다. 이러한 두개골의 해체 흔적은 통일신라시대에도 뇌수를 채취한 이후에 두개골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월성 해자에서 출토되는 곰뼈는 의례적인 상황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뼈에 남은 흔적을 통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반입된 후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목적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장군깃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출토부위와 사용부위가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 주변의 공방지에서 제작되고 관련된 폐기물들이 해자 속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뇌수 채취를 위한 말 두개골 해체

(1: 일본 후지와라(藤原)궁 운하유적(大澤正吾·山崎 健 2016) 2: 재매정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V. 멧음말

월성의 해자 속에서 다양한 동물유체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은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이고 야생동물의 출토수량은 적은 편이다. 가축이 주를 이루는 동물유체의 구성 중에서 곰의 출토는 주목되는 점이다. 삼국시대 흔히 출토되는 야생동물인 사슴과 달리 곰의 출토는 특수한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곰의 출토 사례와 문헌 속의 곰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 곰의 가축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한 가축과 출토되는 부위가 일치하는 점에서 가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곰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입한 곰은 월성의 근처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가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월성 주변의 생산시설은 삼국시대 공방마을과 같은 집약적이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아닌 왕실 혹은 지배층과 관련된 소수의 유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월성 주변의 유적에서는 미상의 소결된 수혈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계림과 월성 해자에서도 제철과 관련된 유구 및 도가니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월성의 주변에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왕실 관련 공방시설이 문헌 기록 속의 관청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를 추후 고찰해 본다면 월성을 중심으로 한 관청의 배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의 성과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고일 2019. 12. 30 | 심사완료일 2020. 2. 12 | 게재확정일 2020. 2. 12

참고문헌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三國史記』
-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2012, 『강릉 강문동 저습지 유적- 강릉시 강문동 134번지 교회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47책.
-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63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 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41.
- _____, 2011, 『월성 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Ⅲ(4호해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68.
- _____, 2018, 『고환경조사 길라잡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9,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0, 『고촌생산유적』.
-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암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박물관, 1999,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Ⅱ』.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4, 『늑도폐총과 분묘군』.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제매정지』, 조사연구학술총서 제84책.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Ⅰ,Ⅱ,Ⅲ』,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 보고 제155책.
- 정관박물관, 2017, 『동물뼈, 이야기를 시작하다』.
- 정구복 외 編著, 1997, 『譯註 三國史記』4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5, 『풍납토성Ⅶ』, 한신대학교박물관총서 제21책.

-논문-

- 고은별, 2012, 「강릉 강문동 저습지 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강릉 강문동 저습지 유적- 강릉시 강문동 134번지 교회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47책.
- 권주현, 2012, 「통일신라시대의 식문화 연구-왕궁의 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8, 한국고대사학회.
- 김수민, 2008, 「신라인의 음식문화」, 『울산사학』13, 울산대학교 사학회.
- 김정숙, 1990, 「新羅文化에 나타나는 動物의 象徴」, 『신라문화』7, 69-104.
- _____, 2003, 「신라 사회에서 말의 사육과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123, 한국사연구회.
- 김현석, 2017, 「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냈을까?」, 『동물뼈, 이야기를 시작하다』, 정관박물관.
- 김현석·이수연, 2018, 「경주 월성 출토 동물유체의 현황과 과제」, 『월성 고환경 복원 연구』.
- 남태광, 2018, 「경주 월성 출토 목재유물 연구」, 『월성 고환경 복원 연구』.
- 박남수, 1993, 「신라수공업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재·최문경, 2017, 「경주 월성과 주변 건물지의 시기별 변천과정-월성 해자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고고학』16-3, 중부고고학회.
- 안보연·홍나영, 2008,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과정과 기술」, 『복식』58-8, 한국복식학회.
- 안소현, 2019, 「월성 해자 식물유체로 본 경관 복원 연구」, 『한국상고사학보』105.
- 유병일, 2003, 「사슴(鹿)의 捕獲·解體·利用에 대한 試論-南海岸의 原三國時代 貝塚資料를 中心으로-」, 『한국상고사학보』105.

- 유병일, 2008, 「경산 임당저습지유적 출토 동물유체 분석」,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Ⅲ』, 영남문화재단연구원 학술조사 보고 제155책.
- _____, 2011, 「월성 해자 출토 동물유체 분석」, 『월성 해자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윤선태, 2019, 「역사 속의 월성」,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 이수환, 2007, 『창원 두루봉 처녀굴 출토 곱화석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정, 2011, 「사육종 돼지의 한반도 출현 시점 및 그 사회경제적·상징적 의미」, 『한국고고학보』79.
- _____, 2017, 「동물을 희생의례물로 삼다」, 『동물뼈, 이야기를 시작하다』, 정관박물관.
- 이충민, 2011, 「신석기시대 포유동물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이유진·이현주, 2010, 「삼국시대 종장관갑 부착 유기질 연구-동래 복천동고분군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75.
- 장용준, 2010, 「韓國 後期 舊石器時代 刃部 磨製石器 試論」, 『고고광장』6, 부산고고학회.

-일문-

- 大澤正吾·山崎健, 2016, 「奈文研ギャラリー(53)」, 『奈文研ニュースNo.61』, 奈良文化財研究所.
- 松井章, 1986, 「動物遺存体の調査(2)」, 『奈良文化財研究所年報』, 奈良文化財研究所.
- 出口公長, 2006, 「正倉院宝物に見る皮革の利用と技術」, 『正倉院紀要』28, 宮内廳.
- 出口公長·竹之内一昭·奥村章·小澤正実, 2006, 「皮革製宝物材質調査」, 『正倉院紀要』28, 宮内廳.

On the usage and discarding of bear (*Ursus* sp) bones excavated from Wolseong moat site

Kim, Hun-Suk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arious animal remain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Wolseong moat site. In this site, domesticates comprise most of the excavated remains while the number of wild animals is relatively small. As such, the existence of *Ursus* sp. is noteworthy. Unlike the case of *Cervus* commonly foun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sites, the existence of *Ursus* sp. in the site could indicate a specific purpose the species.

To illustrate the purpose of *Ursus* sp., case studies of excavated *Ursus* sp. and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bear use were conducted. Hide production with *Ursus* sp. was identified. As the parts of *Ursus* sp. remains from the site are consistent with the parts used for leather in the literature, it is quite possible that *Ursus* sp. was used for hide. *Ursus* sp. would have been brought to the site, to be dismantled and processed for hide-production near the Wolseong site.

The production unit near the Wolseong site is assumed to be in operation for supplying specific products for the royal court, unlike the production units for intensive and mass product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date, a large number of pits of unknown function with burning soil have been found in the vicinity of Wolseong, with artefacts related to production facilities such as crucibles and iron manufacturing site, show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production facilities around Wolseong.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duction facilities for the royal court and the production government illustrated

in the literature will illuminate the placement of governments with Wolseong at the center.

Key words : animal remains, bear bone, hide, production facilities, dismantlement